



미래창조과학부

# 보도자료

<http://www.msip.go.kr>

2014. 7. 18.(금) 조간(온라인 7. 17. 12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오상진 과장(02-2110-2840), 김순권 사무관(2842)  
국립전파연구원 이동정 과장(061-338-4400), 김봉석 연구사(4612)

## 한글문자판,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 국제표준 됐다!

### -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의 국제표준(E.161) 승인 -

□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미래부)는 한글문자판 국가표준이 지난 7월 4일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의 국제표준(E.161)으로 승인되었다고 밝혔다.

\* ITU(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) : 유·무선 통신, 전파, 방송, 위성 주파수에 대한 규칙 및 표준을 개발·보급하고 국제적 조정과 협력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연합(UN) 산하의 국제기구

\* E.161 : 전화기 및 전화망에 연결되는 기기에 대한 자판 배열 국제표준

□ 미래부는 2011년 6월 한글문자판 국가표준을 제정한 이후 한류 및 우리 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한글의 세계화 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글문자판의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,

○ 금년 6월에 개최된 ITU-T 연구반 회의에서 우리나라 하드웨어 방식\*의 국가표준인 천지인 문자판이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로는 처음으로 국제표준으로 추가되었다.

\* 하드웨어 방식 문자판 : 피쳐폰, 유·무선 전화기 등의 자판에 문자/숫자/기호를 인쇄하는 방식

□ 또한, 앞으로 다양한 모바일 스마트기기의 문자판도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부는 ITU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문자입력 표준화도 제안하여 논의할 예정이다.

\* 소프트웨어 방식 문자판 :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식

□ 미래부 관계자는 “이번 한글문자판의 국제표준 반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류 문화 확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, 앞으로 진행될 소프트웨어 기반의 문자입력 방식의 표준화 작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참고 휴대폰 자판 국제표준화 추진경과

- '10.12.2. : 한글 문자판 표준화 추진 정책방향 발표
  - 시민단체에서 국내 사용기술을 토대로 '10. 12월말까지 국가표준(안)을 도출하여 제안하기로 함
- '11.3.18. : 한글 문자판 국가표준 도출 결과 등 향후계획 발표
  - 소비자 조사 결과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천지인, 나랏글, 스카이 방식을 국가표준(안)으로 도출
  - 국가표준이 제정된 후 舊)방통위는 ITU, 舊)지경부는 ISO에 한글 문자판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기로 결정
- '11.6.27. : 한글문자판 방송통신표준 제정
  - 4×3배열을 가진 3가지 형태(천지인, 나랏글, 스카이하글)의 한글 문자판을 포함하는 국가표준 제정
    - \* 피쳐폰 : 천지인, 스마트폰 : 천지인, 나랏글, 스카이하글을 탑재하여 이용자 선택
- '11.9.20. : 아태지역 WTSA-12 준비회의에 기고서 제출·반영
  - ITU-T E.161에 라틴문자 이외의 문자판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안·반영하여 아태지역 공동기고서로 WTSA-12 본회의 제출(2012.12월)
    - \* E.161 : 전화기 및 전화망에 연결되는 기기에 대한 자판 배열 국제표준
    - \* WTSA(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) :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
- '13.9.26. : ITU-T SG2(Study Group2) 회의에 한글문자판 기고서 제출·반영
  - E.161 권고의 부록으로 천지인을 제안하여 반영하고, 소프트웨어 방식의 문자판 표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여 채택
- '14.7.4. : 한글문자판 ITU 표준 최종 승인
  - ITU-T E.161 권고에 천지인이 추가되어 최종 승인